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3% 달성, 소득주도 및 기업활력제고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

# 목 차

## ■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3% 달성, 소득주도 및 기업활력제고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

Executive Summary .....	i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	1
2. 대외 경제 여건 .....	9
3.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13
4. 시사점 및 정책 대응 .....	19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35, juwon@hri.co.kr)

□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14, jphong@hri.co.kr)

                          정 민 연 구 위 원 (2072-6220, chungm@hri.co.kr )외 5명

## *Executive Summary*

### □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3% 달성, 소득주도 및 기업활력제고 정책 병행이 필요하다

#### ■ 최근 국내 경제 동향

최근 경기 국면은 수출의 호조가 전체 경제를 견인하면서 나타나는 '회복 국면'으로 판단된다. 다만 수출 경기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내수의 한 축인 투자가 부진하여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간다. 내수 경기 중 소비는 정부 재정지출 확대와 저금리 기조의 영향으로 회복세가 지속 중이다. 설비투자는 반등하고 있지만 주력 산업들의 투자 계획이 많지 않고 과잉생산능력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반등세가 지속되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는 주택시장 위축, 토목수주 급감, 정부의 규제 정책 등의 영향으로 경기 침체 국면으로 진입되고 있다. 수출은 증가세가 지속되겠지만 품목별로 호조와 둔화가 혼재해 있고, 보호무역주의 강화의 리스크가 상존해 있어 불안한 호조의 모습이 진행 중이다.

#### ■ 2018년 수정 경제 전망의 배경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과 투자 및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수반하지만, 지금 판단하기로는 경기 상승에 도움을 주는 기대감이 반영된 긍정적인 불확실성으로 판단한다.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 상존)**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르는 소비 위축, 건설투자 침체, 3고(高금리, 高원, 高유가) 등의 국내 경기 회복세를 제한하는 요인들은 여전히 상존해 있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원화 가치 상승이 국내 수출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은 현재 수출에 기대어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경기 흐름을 제약할 우려가 있다.

#### ■ 2018년 한국 경제 전망

**2018년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기존(2017년 12월 당시 전망)의 2.8%를 다시 제시한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 주체 심리 개선의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경기 하방 리스크를 고려했기 때문이다. 연중으로는 상고하저의 흐름을 보이며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상반기에 3.0%, 하반기에 2.6%로 전망한다. 만약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실물 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경기 호

름은 상반기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기대된다. **(민간소비)**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7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소비 심리 개선,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일 자리의 질적인 측면 개선 정책 기조 등은 민간소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금리 인상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고용시장 여건 악화 등 소비 개선을 제약하는 요인들이 상존한다. **(건설투자)** 건설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건축 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축 수주가 감소세로 전환되었고, SOC 예산 감축 등에 따른 신규 사업 위축으로 토목 부문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설비투자의 증가율은 둔화될 전망이다.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르는 양호한 수출 흐름으로 설비투자는 증가하겠으나, 기저 효과로 증가세는 다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외거래)** 2018년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보호무역주의 강화, 원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폭은 다소 둔화될 것이다.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개선세 유지 등의 영향으로 수출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이다. 수출을 웃도는 수입 증가율로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7년보다 줄어들 것이다. 경상수지 역시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세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가 이어지며 흑자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물가)** 2018년에도 국제 유가의 상승세는 국내 소비자물가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2017년에 보였던 큰 폭의 상승 압력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원화 강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폭 제한 등의 요인으로 소비자물가 상승폭은 둔화될 전망이다. **(고용)** 2018년 경제 성장률이 2017년 대비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으로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건설경기 둔화 등이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어 실업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2018년 국내 경제 수정 전망>

구 분	2016년 연간	2017년			2018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2.8	2.8	3.4	3.1	3.0	2.6	2.8
민간소비 (%)	2.5	2.1	3.0	2.6	2.7	2.4	2.6
건설투자 (%)	10.7	9.4	5.9	7.5	1.5	0.4	0.9
설비투자 (%)	△2.3	15.9	13.3	14.6	5.0	3.9	4.5
수출증가율 (%)	△5.9	15.7	15.9	15.8	7.1	4.7	5.9
소비자물가 (%)	1.0	2.0	1.9	1.9	1.6	1.8	1.7
실업률 (%)	3.7	4.1	3.3	3.7	4.0	3.6	3.8

주 : 실적치는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 시사점 및 정책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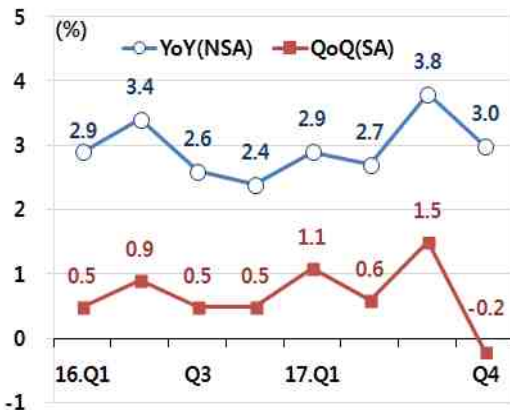
(**시사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 주체 심리 개선 등의 경기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점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부문별 경기 하방 리스크가 상존한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더라도 경제 구조적인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지 않으면 투자와 소비 심리 개선이 실물 경제 활성화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책 대응**) 여전히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 및 투자 부문의 부진이 우려된다.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정책 및 인위적인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 회복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과 수출 및 투자 중심의 공급주도 성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둘째**,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계 소비위축 가능성 완화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세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 **넷째**,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의 하강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 SOC 투자 시기 조절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여섯째**, 물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일곱째**,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 1. 최근 국내 경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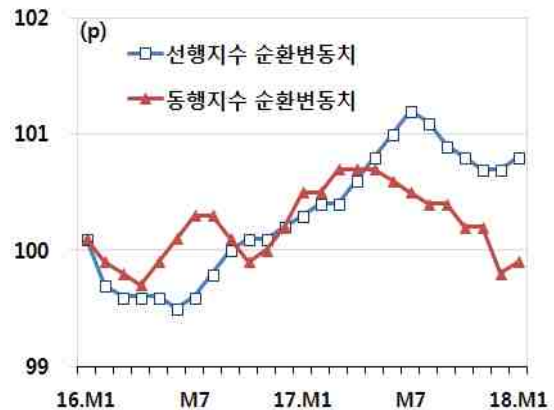
- (경기 회복 기초 유효, 단 회복력은 여전히 미약) 최근 경제성장 속도가 완전한 회복 국면을 보여주고 있으나,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방향성은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
- 2017년 4분기 경제성장률은 직전 분기인 3분기의 전기대비 1.5%의 '감작 성장'에 대한 기저효과로 인해 전기대비  $\Delta 0.2\%$ 의 감소세를 시현
  - 부문별로 보면 4분기 수출증가율이 전기대비  $\Delta 5.4\%$ , 수입증가율이  $\Delta 4.1\%$ 로 외수 부문이 침체되는 모습
  - 내수 부문의 경우 민간소비가 전기대비 1.0% 증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증가율이 각각  $\Delta 3.8\%$  및  $\Delta 0.6\%$ 의 침체를 시현
- 한편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1월중 반등이 있었으나 추세 상으로는 여전히 경기하강 중으로 보여 전반적인 경기 회복력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
  - 현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 1월에 들어 소폭 상승
    - ※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7년 11월 100.2p, 12월 99.8p, '18년 1월 99.9p
  - 경기 방향성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순환변동치도 지난 8월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하는 모습
    - ※ 선행지수순환변동치: '17년 11월 100.7p, 12월 100.7p, '18년 1월 100.8p
  - 다만 경기 동행 및 선행지수가 추세 상으로는 여전히 경기하강 중으로 보여 전반적인 경기 회복력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

<분기 경제성장률>



자료 : 한국은행.

<경기 동행 및 선행 지수 순환변동치>



자료 : 통계청.

○ (소비 회복세 지속과 구매력 요인 불안) 2018년 1분기에 들어서도 소비 회복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

- 1월 비내구재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내구재 판매의 호조로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4%의 증가율을 기록

· 1월중 내구재 소비는 자동차 판매를 중심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

※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7년 11월 5.3%, 12월 1.4%, '18년 1월 1.4%

※ 내구재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YoY): '17년 11월 11.0%, 12월  $\Delta$ 0.9%, '18년 1월 17.2%

- 한편 소비재 수입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1월에 들어 수입 물량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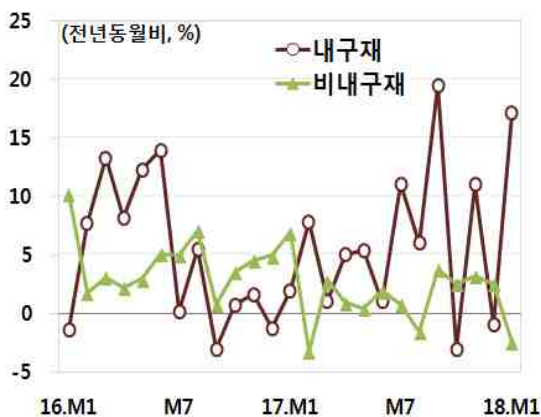
· 소비재 수입 물량은 2017년 12월 이후 증가세를 기록

※ 소비재수입액 증가율(YoY): '17년 11월 12.9%, 12월 13.0%, '18년 1월 25.2%

※ 소비재수입물량 증가율(YoY): '17년 11월  $\Delta$ 0.2%, 12월 6.5%, '18년 1월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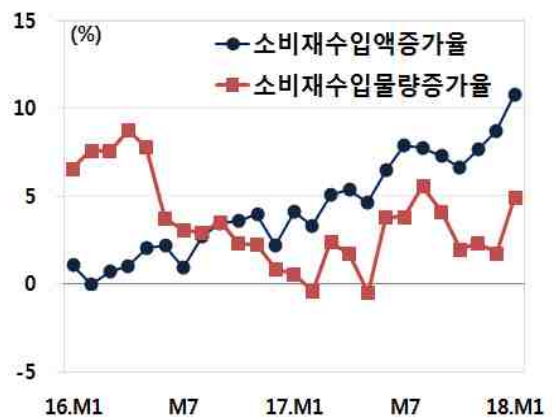
- 다만 고용시장 개선 미흡과 가계부채 구조조정에 따른 구매력 위축 가능성 등은 여전히 소비 부문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상품군별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소비재 수입액 및 수입물량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주 : 6개월 이동평균.



○ (설비투자 회복 속 향후 방향성은 불확실) 2017년 말 빠르게 악화되던 설비투자 회복세가 2018년 1월에 들어 반등하는 모습

- 2017년에 들어 강한 회복세를 보였던 설비투자가 4분기에 들어 그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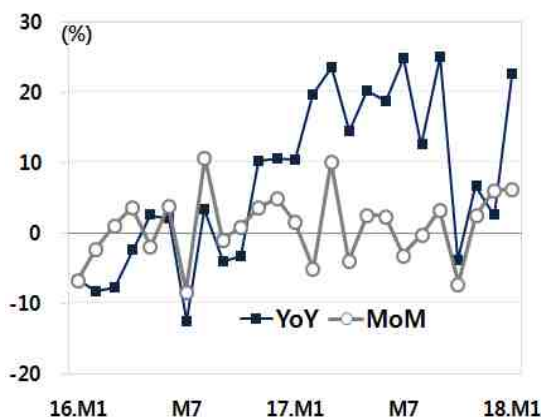
- 2018년 1월 전년동월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22.5%의 높은 수준 기록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YoY): '17년 11월 6.7%, 12월 2.5%, '18년 1월 22.5%
- 전기대비 기준으로 2017년 12월 6.0%에서 2018년 1월에 6.2%로 증가율이 상승
  - ※ 설비투자지수 증가율(MoM): '17년 11월 2.5%, 12월 6.0%, '18년 1월 6.2%

-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액과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서로 방향성이 엇갈리는 모습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2017년 4분기 이후 증가세가 하락하는 모습
- 반면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은 2017년 11월 이후 20%대의 증가율을 유지
  - ※ 자본재수입액증가율(MoM): '17년 11월 22.5%, 12월 22.7%, '18년 1월 2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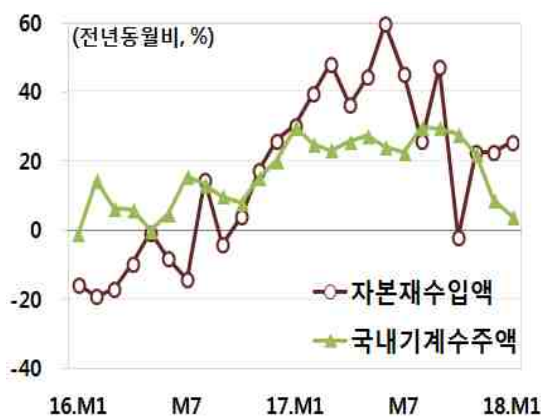
- 다만 주력 제조업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비투자 회복세가 확장되기는 어려워 보임

<설비투자지수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국내기계수주액 및 자본재수입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주 : 국내기계수주액 증가율은 3개월 이동평균.



○ (건설투자 침체 국면 진입 시작) 건설경기의 동행 지표와 선행지표가 개선되었으나 이는 명확히 일시적 요인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건설 경기는 침체 국면으로의 진입이 확실

- 동행지표(건설기성)상으로 민간 부문이 기존 수주 물량의 완공으로 호조를 지속중이나 공공 부문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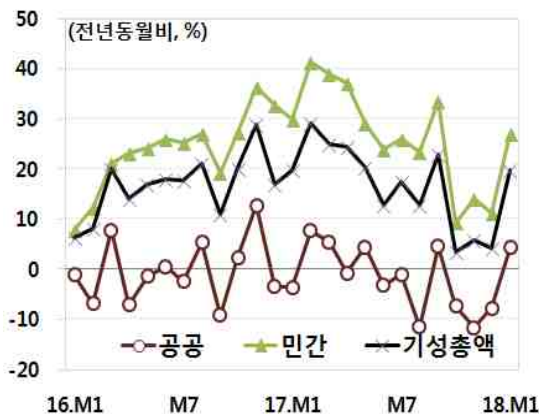
- 2018년 1월 건설기성액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9%로 호조를 시현
  - ※ 건설기성 증가율(YoY): '17년 11월 5.9%, 12월 4.3%, '18년 1월 19.9%
- 발주자별로는 공공 부문이 1월중 4.3%의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며, 민간 부문은 27.1%의 증가세를 기록
  - ※ 공공건설기성 증가율(YoY): '17년 11월  $\Delta$ 11.6%, 12월  $\Delta$ 7.8%, '18년 1월 4.3%
  - ※ 민간건설기성 증가율(YoY): '17년 11월 14.2%, 12월 11.3%, '18년 1월 27.1%

- 건설수주액(선행지표)은 민간과 공공 부문 모두 감소세를 보였으나 민자 부문이 전년동월대비 4.2조 원이 증가하면서 1월중 30.8%의 증가율을 기록

- ※ 건설수주 증가율(YoY): '17년 11월  $\Delta$ 11.8%, 12월 4.8%, '18년 1월 30.8%
- ※ 공공건설수주 증가율(YoY): '17년 11월  $\Delta$ 17.4%, 12월 26.9%, '18년 1월  $\Delta$ 45.1%
- ※ 민간건설수주 증가율(YoY): '17년 11월  $\Delta$ 9.5%, 12월  $\Delta$ 2.4%, '18년 1월  $\Delta$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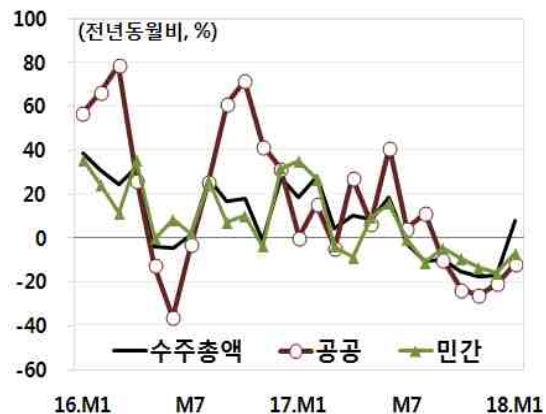
- 따라서 주력 부문인 민간과 공공 부문이 과잉공급과 SOC 예산 급감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여 향후 건설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아 보임

<건설기성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건설수주액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주 : 3개월 이동평균.

1) 민자 사업의 대부분은 강원도 삼척·강릉 석탄 화력발전소 수주로 추정되며 일시적 요인으로 간주.

○ (수출 경기 둔화 가능성 증대) 수출 부문은 증가세가 지속중이나 증가율 자체가 낮아지는 경기 둔화 국면이 진행 중

- 2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4% 증가율을 기록하며 '16년 11월 이후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중, 단 그 증가율은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예상했던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판단

· 수출은 유화 및 반도체 수출단가 상승에 힘입어 2016년 11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중

※ 수출액 증가율: '17년 11월 9.7%, 12월 8.8%, '18년 1월 22.3%, 2월 4.0%

· 그러나 2월중 수출물량이 감소세를 보이는 등 수요 회복보다는 단가 상승요인이 수출 증가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 수출물량 증가율: '17년 11월 2.4%, 12월 3.8%, '18년 1월 5.8%, 2월  $\Delta$ 2.4%

- 나아가 주력 시장 중 대 중국 및 ASEAN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한 자릿수 증가율에 그치고, 대 미국 수출은 10% 이상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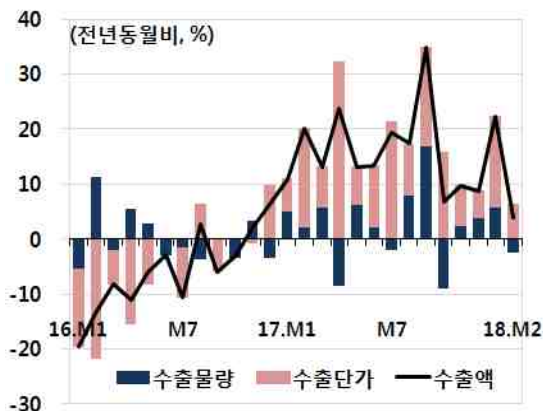
· 대 중국 수출 증가율이 비록 증가세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2017년 8월 이후 두 자릿수 증가율이 2018년 2월중 3.7%에 그치는 모습

※ 대중 수출액 증가율: '17년 11월 20.4%, 12월 14.9%, '18년 1월 24.5, 2월 3.7%

· 한편 2월중 대 아세안 수출증가율은 4.9%, 대 EU 수출증가율은 17.8% 증가하였으며, 대 미국 수출은 10.7%가 감소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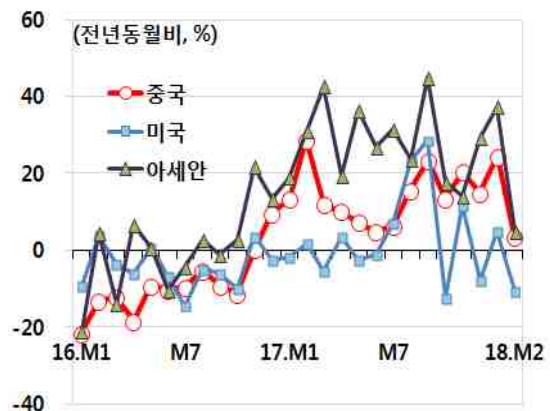
- 한편, 보호무역주의가 우리 수출경기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게 우려됨

<월별 수출 증가율>



자료 : 관세청, 산업통상자원부.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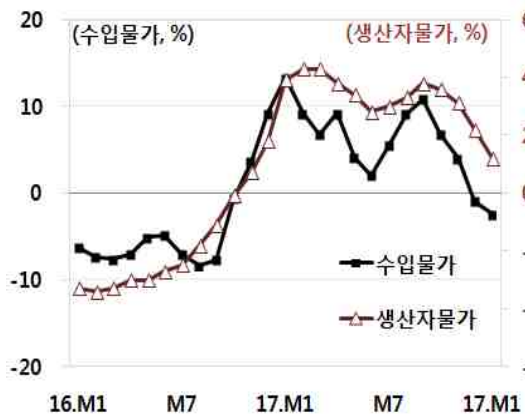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 (환율 요인에 따른 저물가) 원화 강세에 따른 수입 물가의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기록중

- 최근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수입 물가 및 생산자 물가 상승률이 하락중
  - 2018년 1월 수입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Delta 2.5\%$ 로 '17년 12월의  $\Delta 0.9\%$ 보다 하락폭이 확대
    - ※ 수입물가상승률(YoY): '17년 11월 4.0%, 12월  $\Delta 0.9\%$ , '18년 1월  $\Delta 2.4\%$
  - 2018년 1월 생산자물가상승률은 1.2%로 2017년 12월의 2.2%보다 하락
    - ※ 생산자물가상승률(YoY): '17년 11월 3.1%, 12월 2.2%, '18년 1월 1.2%
  
- 이러한 공급측 물가 하락 압력으로 국내 소비자물가도 1% 내외의 낮은 물가 수준을 기록
  -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10월 이후 최근까지 1%대를 기록
    - ※ 소비자물가상승률(YoY): '17년 11월 1.3%, 12월 1.5%, '18년 1월 1.0%, 2월 1.4%
  - 생활물가<sup>2)</sup>상승률도 1% 내외를 기록하며 비교적 안정되는 모습
    - ※ 생활물가상승률(YoY): '17년 11월 1.3%, 12월 1.6%, '18년 1월 0.8%, 2월 1.4%
  
- 다만 여전히 노동시장에서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충격이 상품시장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생활물가를 중심으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는 배제하기 어려움

<생산자물가 및 수입물가 상승률>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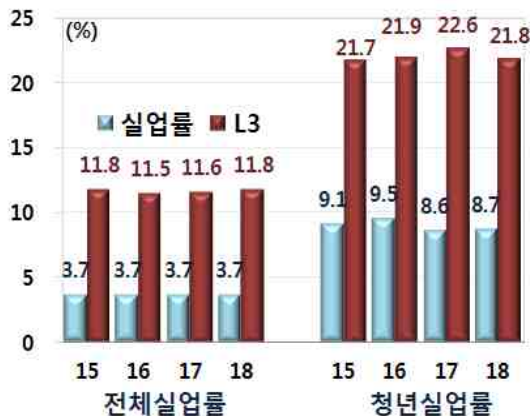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2) 소비자물가 품목중 체감물가를 설명하기 위해 구입 빈도가 높고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을 민감하게 느끼는 141개 품목으로 작성한 지수.

○ (고용시장의 개선 미흡) 최근 실물경제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고용시장이 뚜렷하게 개선되는 조짐은 발견하기 쉽지 않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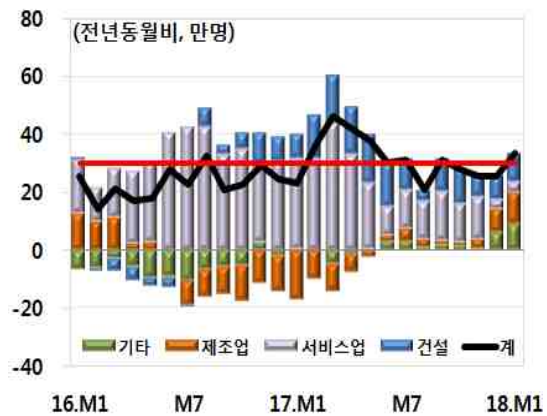
- 2018년 1월 실업률은 3.7%로 전년동월(17년 1월 3.7%)와 동일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월 청년실업률은 8.7%로 전년동월의 8.6%보다 상승
  - 한편 1월중 전체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 3)은 전년동월의 8.6%보다 0.1%p 상승
- 1월중 신규취업자의 30만 명대로의 복귀는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고용창출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제조업 부문의 기저효과<sup>3)</sup>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
  -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2017년 10월 이후의 20만 명대에서 1월 에 33만 4,000명으로 크게 높아지는 모습
    - ※ 취업자 증감(YoY): '17년 11월 25.7만 명, 12월 25.7만 명, '18년 1월 33.4만 명
    - 1월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전년동월대비)은 10.6만 명, 서비스업 3.9만 명, 건설업은 9.9만 명
- 향후에도 임금상승, 기업투자 부진 등 핵심요인들이 고용창출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여, 아무리 실물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더라도 고용시장의 개선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실업률 및 체감실업률(10월 기준)>



자료 : 통계청.  
주 : L3는 고용보조지표3를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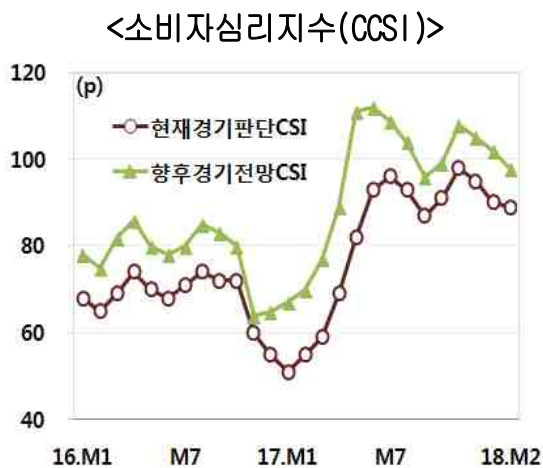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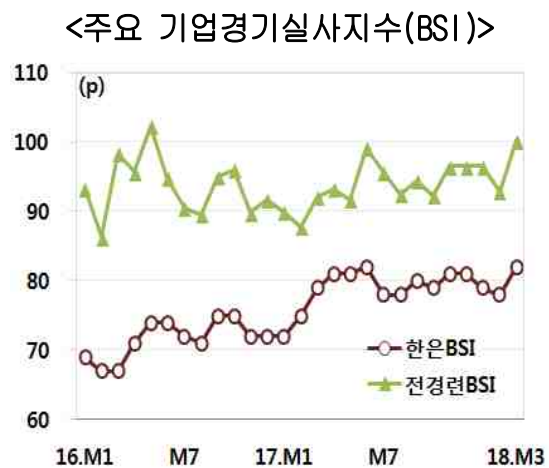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3) '17년 1월중 제조업의 취업자수는 17만 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저효과로 '18년 1월중 전년동월에 대한 제조업 취업자수가 10.6만 명이나 크게 증가하는 데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

- (실물 경기와 체감 경기의 괴리) 실물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소비심리가 악화중인 가운데 기업심리는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상황
- 국내 실물 경기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가계가 체감하는 현 경기 상황과 미래 전망 모두 비관적 시각이 확대
  - 가계의 현재의 경기 상황에 대한 체감 정도를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는 2018년 2월 현재 89p로 2017년 11월 이후 하락 추세 지속
    - ※ 현재경기판단CSI: '17년 11월 98p, 12월 95p, '18년 1월 90p, 2월 89p
  - 한편 향후경기전망CSI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2월 현재 기준치 100p를 하회
    - ※ 향후경기전망CSI: '17년 11월 108p, 12월 105p, '18년 1월 102p, 2월 98p
- 3월에 들어 기업의 경제심리가 2월보다 소폭 개선되고 있으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시각이 상대적으로 부정적<sup>4)</sup>
  - 3월중 전경련 BSI(전망)는 기준치 100p를 소폭 상회하면서 낙관적 전망이 다소 우세
    - ※ 전경련 BSI: '17년 11월 96.5p, 12월 96.5p, '18년 1월 96.5p, 2월 92.8p, 3월 100.2p
  - 한은 BSI(업황전망)는 장기 평균치인 80p<sup>5)</sup> 내외에서 횡보하는 모습
    - ※ 한은 BSI: '17년 11월 81p, 12월 81p, '18년 1월 79p, 2월 78p, 3월 82p
- 이러한 괴리는 고용시장의 개선 미흡, 가계부채 상환 부담 증가 등에 따른 가계의 미래 불안감이 확산되기 때문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음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4) 전경련 BSI(600대 기업 대상)는 대기업의 시각을 한은 BSI(3,313개 기업 대상)는 중소기업의 시각을 더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  
 5) 2003년 2월 이후 현재까지 한은 BSI(업황전망)는 기준치 100p를 넘는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기간중 장기 평균치는 80p임. 따라서 80p는 보통 수준의 경기에 대한 시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판단.



## 2. 대외 경제 여건

### ① 세계 경기 및 교역 : 회복세

○ (현황) 2017년에 선진국 및 신흥국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 세계 교역은 증가세

- 선진국 경기 : 유로지역, 일본 등의 선진국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미국은 24분기 이후 회복세가 강화
- 신흥국 경기 : 중국, 인도의 견조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러시아, 브라질 등의 신흥국은 2017년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
- 세계 교역 : 글로벌 경기 회복으로 세계 교역 확대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추이>

(%)

구분	2016년					2017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세계 경제성장률	-	-	-	-	3.2	-	-	-	-	3.7
선진국	-	-	-	-	1.7	-	-	-	-	2.3
미 국	0.6	2.2	2.8	1.8	1.5	1.2	3.1	3.2	2.5	2.3
유로지역	0.5	0.4	0.4	0.7	1.8	0.6	0.7	0.7	0.6	2.4
일 본	0.5	0.3	0.2	0.4	0.9	0.3	0.6	0.6	0.1	1.8
신흥개도국	-	-	-	-	4.4	-	-	-	-	4.7
중 국	6.7	6.7	6.7	6.8	6.7	6.9	6.9	6.8	6.8	6.8
인 도	9.3	8.1	7.6	6.8	7.1	6.1	5.7	6.5	7.2	6.7
브 라 질	△5.3	△3.4	△2.7	△2.5	△3.5	0.0	0.4	1.4	2.1	1.1
러 시 아	△0.4	△0.5	△0.4	0.3	△0.2	0.5	2.5	1.8	-	1.8
ASEAN-5	-	-	-	-	4.9	-	-	-	-	5.3
세계 교역증가율	-	-	-	-	2.5	-	-	-	-	4.7

자료1) 연간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8년 1월).

2) 분기 (미국: 상무부 ; 일본: 내각부 ; 유로존: Eurostat ; 중국: 국가통계국 ; 인도: 인도중앙통계기구 ; 브라질: IBGE ; 러시아: 연방 주 통계청).

주1) 분기성장률 (미국: 전기대비연율 ; 일본: 전기대비 ; 유로존: 전기대비 ; 중국: 전년동기대비 ; 인도: 전년동기대비 ; 브라질: 전년동기대비 ; 러시아: 전년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이 포함됨.

3) 세계 교역은 상품 및 서비스의 교역량 기준.

○ (전망) 2018년 선진국 경제는 회복세 유지, 신흥국 경제는 성장세 확대, 세계 교역은 증가세 유지 전망

- 선진국 경기 : 미국의 회복세는 강화되나, 유로존,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회복세가 소폭 둔화되면서 선진국 경기 회복세는 2017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 미국은 감세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대 효과 등으로 경기 회복세 강화 예상
  - 유로존은 브렉시트 협상, 남유럽 은행 리스크의 상존 등 불확실성으로 성장세 소폭 둔화 전망
  - 일본은 임금상승 지연에 따른 소비 회복 저조 등으로 회복세 약화 전망
- 신흥국 경기 : 중국은 성장세의 완만한 둔화가 예상되나 브라질 및 인도는 성장세가 확대되는 등 신흥국 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
  - 중국은 정부는 양적 성장보다는 소득격차, 환경오염, 금융 리스크 등의 구조개혁에 주력하면서 성장세는 다소 둔화될 전망
- 세계 교역 : 세계 경제의 회복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 정상화 및 무역전쟁 우려 등의 하방 리스크가 상존하여 세계 교역 증가율은 2017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

<IMF의 주요국 및 경제권역별 경제성장률 전망>

(%)

	2016년	2017년	2018년(E)		
			2018년 1월 전망	2017년 10월 전망	2017년 7월 전망
세계 경제성장률	3.2	3.7	3.9	3.7	3.6
선진국	1.7	2.3	2.3	2.0	1.9
미 국	1.5	2.3	2.7	2.3	2.1
유로지역	1.8	2.4	2.2	1.9	1.7
일 본	0.9	1.8	1.2	0.7	0.6
신흥개도국	4.4	4.7	4.9	4.9	4.8
중 국	6.7	6.8	6.6	6.5	6.4
인 도	7.1	6.7	7.4	7.4	7.7
브 라 질	△3.5	1.1	1.9	1.5	1.3
러 시 아	△0.2	1.8	1.7	1.6	1.4
ASEAN-5	4.9	5.3	5.3	5.2	5.2
세계 교역증가율	2.5	4.7	4.6	4.0	3.9

자료 : IMF.



② 국제 유가 : 소폭 상승 전망

○ (현황) 2017년 국제 유가는 상승세

- 국제 유가는 상반기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하반기에 상승세로 반전되었으며 11월에 Dubai 유가는 60달러를 돌파
  - Dubai 유가는 2017년 1월 53.7달러에서 연초 하락세를 보이며 6월 46.5달러까지 하락했으나 7월부터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12월에는 61.6달러까지 상승
  - 하반기에 유가가 상승하면서 WTI 유가와 Dubai 유가와 가격 스프레드가 확대
  - 2018년 국제 유가는 지정학적 불안에 따른 공급 축소로 1월에 급상승했으나 2월에는 미국의 생산 증대 등으로 인해 다소 하락

○ (전망) 2018년 국제 유가는 수요 증가와 OPEC 감산 연장 합의로 상승이 지속되나 유가 상승폭은 2017년에 비해 축소될 전망

- 2018년 국제 유가는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따른 석유 수요 증가와 OPEC 감산 등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세계 경기가 신흥국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세계 석유 수요는 완만히 상승할 전망
  - OPEC 및 러시아 등 산유국의 생산 감축,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등은 국제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국제 유가 추이 및 전망>

(달러/배럴)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예)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Dubai	50.7	41.4	51.4	54.9	53.2	64.2	62.3	63.3
WTI	48.8	43.5	50.0	51.7	50.9	60.4	56.0	58.2

자료 : 한국석유공사, EIA(2018.3, STEO), IHS Markit(2018.2).

주1) 2017년까지는 한국석유공사의 유가 실적치.

2) 2018년부터는 미국 에너지정보청(EIA), IHS Markit의 유가 전망치.

③ 주요국 환율 : 달러화 약보합세, 유로화 강세 전망

○ (현황) 2017년 중 달러화는 약세,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강보합세 흐름

- 달러화 :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 유로화 가치 상승 등으로 달러화는 연초 대비 약세

· 달러화 지수(주요국 통화대비)는 2017년 1월 101.2p에서 9월 92.3으로 하락했으나 12월 93.4p로 상승

- 기타 주요국 통화 : ECB 테이퍼링 계획 발표, 유로존 경기 회복 등으로 유로화는 강세, 북한 리스크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등으로 엔화 강보합세

· 달러 대비 유로화 환율은 2017년 1월 0.942유로에서 12월 0.845유로로 하락

·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2017년 1월 115.1엔에서 12월 113.0엔으로 하락

○ (전망) 2018년에 달러화는 약보합세, 유로화는 강세, 엔화는 약보합, 위안화는 강보합세 전망

- 달러화 : 유로존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능성, 감세 정책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 전망 등으로 달러화 가치는 약보합세 전망

- 유로화 : ECB 양적완화 축소 등에 따라 유로화 가치는 강세 전망

- 엔화 : 일본의 성장세 부진 및 금융완화 기조 지속으로 약보합세 전망

- 위안화 : 정부 차원의 구조 개혁으로 금융리스크 등 구조적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강보합세 전망

<국제투자은행의 주요국 환율 전망>

구분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2017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0.89	0.81	0.79	112.1	109.7	106.7	6.75	6.34	6.31
최고	-	0.87	0.83	-	117.0	112.0	-	6.50	6.43
최저	-	0.78	0.76	-	104.0	101.0	-	6.23	6.18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주 : 6개월후 및 12개월후는 2018년 2월 이후 전망치 기준.

### 3.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 (수정 전망 배경) 2017년 12월, 2018년 경제 전망 발표 이후 대내외 여건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가능성이 감지되어 2018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수정을 고려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경제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투자 및 소비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농후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수반함
    - 그러나 향후 예상되는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으로 불거졌던 한반도 긴장 고조를 완화시키고 경기 상승에 도움을 주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긍정적인 불확실성으로 판단
  -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 상존) 관세전쟁으로 인한 수출 둔화, 가계부채 구조 조정에 따른 소비 위축, 건설투자 침체, 3고(高금리, 高환율, 高유가) 등 국내 경기 회복세 제한 요인들이 상존
    - 미국발 관세전쟁이 글로벌 무역전쟁으로 확산될 경우, 무역의존도가 높은 경제 특성상 수출 경기에 힘입은 국내 경제 회복세가 꺾일 우려
    - 가계부채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대책과 병행하여 기준금리 인상이 필요하나 기준금리 인상이 소비를 위축시킬 우려가 상존
    - 향후 건설투자의 침체 국면 진입이 예상되는 바 경제 성장과 고용창출력의 위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수록 원화 가치가 상승하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 경기에 부담을 줄 가능성도 고려

○ 수정 경제 전망의 내용

- 경제성장률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 주체 심리 개선의 긍정적 요인이 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경기 하방 리스크를 반영하여 2018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8%를 유지
  -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가 실물 경제 개선으로 이어질 경우 하반기 경기 흐름은 상반기와 유사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기대
  - 2018년 성장률은 상반기 3.0%, 하반기 2.6%로 상고하저의 모습이 나타날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제성장률(%)	2.8	2.8	3.4	3.1	3.0	2.6	2.8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민간소비 : 증가세 유지 전망

- 남북정상회담 및 북미정상회담 등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될 경우 가계의 소비심리 개선과 함께 민간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또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가계소득이 개선되고 근로시간 단축, 고용질 개선 정책 등이 성공한다면 민간소비의 개선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
- 다만, 금리인상으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 제한적인 신규일자리 확대 등 고용시장 개선 지연이 민간소비 확대를 제한
-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상반기 2.7%, 하반기 2.4%, 연간 2.6%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민간소비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증가율(%)	2.5	2.1	3.0	2.6	2.7	2.4	2.6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건설투자 : 증가세 둔화 전망

- 건축 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건축 수주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2018년 건축 경기는 점차 하강 국면에 진입할 전망
- SOC 예산 감축 등으로 토목 건설 역시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 투자는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증가율(%)	10.7	9.4	5.9	7.5	1.5	0.4	0.9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설비투자 : 증가세 둔화 전망

- 세계 경제 회복세에 따른 양호한 수출 흐름으로 2018년에도 설비투자는 증가하겠으나, 기저 효과로 2017년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될 전망
- 반도체 부문의 경우 IT 경기 호조로 2018년에도 대형 투자가 예정되어 있어 2017년 수준의 투자 규모를 이어갈 예정
- 단, 하반기 이후 IT 성장세 둔화 전망, 여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 등은 설비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인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	△2.3	15.9	13.3	14.6	5.0	3.9	4.5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수출 : 증가세 둔화 전망

- 2018년은 신흥국 중심의 세계경기 회복세로 글로벌 수입 수요가 늘어 수출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움직임이며 주요 경제권 간 관세전쟁이 전면전으로 확산될 경우 국내 수출 침체 가능성
- 원화 강세, 선진국 통화긴축 기조 역시 2018년 수출 증대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여 증가 폭은 축소

- 수입 : 증가세가 둔화되나 원자재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입은 원자재 가격 상승, 민간소비 회복, 자본재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겠지만 2017년 수입 증가율이 크게 늘었던 것에 대한 기저 효과로 상승 폭은 둔화

-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 : 2018년 무역수지는 910억 달러 내외, 경상수지는 730억 달러 내외 전망

- 무역수지 규모는 수출을 웃도는 수입 증가율로 2017년 대비 감소한 910억 달러 내외 전망
- 경상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세로 인한 여행수지 적자 지속과 건설수지 부진이 이어지며 2017년보다 감소한 730억 달러 내외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대외거래 전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억 달러)	992	357	428	785	350	380	730
무역수지(억 달러)	892	449	503	952	452	458	910
수출증가율(%)	△5.9	15.7	15.9	15.8	7.1	4.7	5.9
수입증가율(%)	△6.9	21.3	14.6	17.8	8.3	7.5	7.9

자료 : 실적치는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물가 : 상승폭 둔화 전망

- 2018년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폭은 2017년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 일 것으로 예상되어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전망
- 또한 원화 강세 기조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폭 제한 등이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 다만,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등으로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상회할 가능성도 존재
- 2018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상반기 1.6%, 하반기 1.8%, 연간 1.7%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소비자물가(전년동기대비) 전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0	2.0	1.9	1.9	1.6	1.8	1.7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 고용 : 실업률 소폭 상승 전망

- 2018년 경제성장률이 2017년 대비 소폭 둔화되고, 자동차 산업 등의 구조조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고용시장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 존재
- 특히 건설경기 둔화로 건설업 부문 취업자가 감소하여 실업률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한편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정책, 일자리 추경 집행 등은 단기적이거나 고용시장을 개선하고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나, 중장기적으로 효과가 지속될지 의문
- 2018년 실업률은 상반기 4.0%, 하반기 3.6%, 연간 3.8%로 전망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고용 지표 전망>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실업률(%)	3.7	4.1	3.3	3.7	4.0	3.6	3.8

자료 : 실적치는 통계청, 2018년 전망치는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의 2018년 한국 경제 전망표(2018.3)>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E)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8	2.8	3.4	3.1	3.0	2.6	2.8
	민간소비 (%)	2.5	2.1	3.0	2.6	2.7	2.4	2.6
	건설투자 (%)	10.7	9.4	5.9	7.5	1.5	0.4	0.9
	설비투자 (%)	△2.3	15.9	13.3	14.6	5.0	3.9	4.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달러)	992	357	428	785	350	380	730
	무역수지 (억 달러)	892	449	503	952	452	458	910
	수출증가율 (%)	△5.9	15.7	15.9	15.8	7.1	4.7	5.9
	수입증가율 (%)	△6.9	21.3	14.6	17.8	8.3	7.5	7.9
소비자물가상승률 (%)		1.0	2.0	1.9	1.9	1.6	1.8	1.7
실업률 (%)		3.7	4.1	3.3	3.7	4.0	3.6	3.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4. 시사점 및 정책 대응

○ (시사점)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인한 경제 주체 심리 개선 등의 경기 상승 기대감이 커지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부문별 하방 리스크가 상존

- 세계 경기 확장세 및 수요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는 유지되겠지만,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 및 무역전쟁 가능성 고조 등은 수출 경기에 힘입어 개선되고 있는 한국 경제 흐름을 제약할 수 있는 요인

- 한편, 내수 부문에서 향후 건설투자 침체 및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경제성과 고용 창출력의 위축이 불가피하며, 이로 인해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따르는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개선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우려도 상존

○ (정책 대응) 여전히 한국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수출 및 투자 부문의 부진이 우려됨. 분배 중심의 소득주도 정책 및 인위적인 고용 확대를 통한 소비 회복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 그러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및 고용 창출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기업의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향후 경제 정책 방향은 소득주도 성장과 수출 및 투자 중심의 공급주도 성장 정책이 병행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1) 중장기적인 경제 역동성 복원 정책 추진, (2) 고용 및 소득 안정 및 소비 진작책, (3) 기업 투자활성화, (4) 부동산 안정화와 건설경기 연착륙, (5) 수출 경기 회복세 강화, (6) 서민 물가 안정 대책, (7) 장기적 고용 안정 달성 등이 필요함

첫째,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경제 역동성 복원, 안정적인 경제 성장 확보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재정확대와 통화긴축의 상반된 정책 기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 내외수의 불균형, 잠재 성장률 둔화 등 경제 내 불안 요인 관리를 통해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
- 지속적인 성장 잠재력 확충, 경제 구조 업그레이드 등 혁신성장을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생 경제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어 더 불어 잘사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
- 재정지출 확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재정 및 통화 정책이 상반되는 방향성이 가져 올 수 있는 구축효과, 유동성의 흐름 단절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

**둘째, 가계의 고용 안정 및 소득 증대와 동시에 가계부채 구조조정으로 인한 가계의 소비위축 가능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민간소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투자, 수출, 기업 실적 개선이 가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는 채널을 확대할 필요
  - 일자리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일자리 질적 개선을 통해 가계의 근로소득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소득 경로를 강화해야 함
  - 또한 기업의 신규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미취업자에 대해 정부의 일자리 탐색 지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일하는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정책 입안 시 가계의 소비 위축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존재
  - 경제의 건전성과 지속성을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정책적 일관성은 확보되어야 할 것임
  - 가계부채 안정화 정책과 기준금리 인상 등이 빠르게 이루어질 경우 가계의 소비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도 존재함
  - 이에 따라 가계부채의 구조조정이 거시경제에서 경제성장률, 가계신용과 민간소비, 그리고 가계 및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지역별, 차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세심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셋째, 대내외 경제 여건 개선세가 기업의 투자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마련하고 투자 심리를 회복해야 한다.

- 최근 세계 경기 회복세, 수출 증가 등 대외 여건 개선이 기업 투자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마련을 통해 기업 투자 심리를 회복할 필요
- 현재 국내외 경제 회복세를 놓치지 말고 국내 투자로 연결시켜야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음

넷째, 하반기 이후 건설 경기의 하강 가능성이 점쳐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 안정, SOC 투자 시기 조절 등을 통해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

- 2017년 성장을 견인한 건설투자가 2018년에는 오히려 경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정부의 부동산 경기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부동산 시장의 급랭을 방지하고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할 것임
- 특히 건설 경기 하강 가능성이 2018년 하반기 이후 유력해 보이기 때문에 SOC 발주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집중하여 건설경기의 변동성을 축소

다섯째,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보호무역주의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수출 품목과 지역의 다변화 및 현지화를 통해 특정 대상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완충 능력 강화가 필요
  - 인도, 아세안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수출 시장의 외연을 확장하는 노력이 필요
- 최근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로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절벽 가능성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
  - 최악의 시나리오인 미국의 관세 인상, 이에 대한 보복 관세 인상 등이 반

복되면서 관세전쟁이 전세계로 퍼질 가능성에 대한 정부, 산업단체, 기업의 '컨틴전시 플랜'의 마련이 요구됨

**여섯째, 물가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생활물가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여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 최근 저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의 인건비 상승이 상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는 비용상승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존재
- 물가 상승이 국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물가관리를 강화해야 함
  -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높은 음식업과 자영업 등에 대해 임금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방안 및 정책 시행 유예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원칙적으로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되, 담합이나 사재기와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 및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적극적으로 감시해야 함
  -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경우 정부의 조기 구매 계약을 확대하고 특정 생필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수입물량을 증가시켜 수급안정을 확보

**일곱째, 일자리 창출 능력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

- 경제 전반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통해 일자리 창출력 회복에 주력해야 함
  -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확대를 통한 단기적 성과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
  -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고용 창출력이 높은 서비스 산업의 확대 및 경쟁력 제고
  - 민간 부문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신규 일자리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
- 특정 부문에서의 일자리 급감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통해 장기적인 고용 안정을 달성해야 함

- 최근 자동차, 조선 산업 등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공적 자금 투입은 지양 하되, 기업, 주주, 노조의 기업회생을 위한 양보와 노력 여부 및 업종별 대내외 여건과 회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 SOC 투자의 시기 조절을 통해 건설부문 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과 건설부문 취업자 수의 변동성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음
- 실업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실업자 및 미취업자에 대한 일자리 탐색을 적극적으로 지원 **HRI**

2018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참여 연구진

【총괄】	주원	경제연구실장	(juwon@hri.co.kr, 02-2072-6235)
【연구조정】	홍준표	동향분석팀장	(jphong@hri.co.kr, 02-2072-6214)
	정민	연구위원	(chungm@hri.co.kr, 02-2072-6220)
【대외여건】	김수형	연구위원	(soohyung@hri.co.kr, 02-2072-6217)
【소비】	오준범	선임연구원	(jboh19@hri.co.kr, 02-2072-6247)
【투자】	백다미	연구위원	(dm100@hri.co.kr, 02-2072-6239)
【대외거래】	김천구	연구위원	(ck1009@hri.co.kr, 02-2072-6211)
【고용·물가】	신유란	연구위원	(yooran0111@hri.co.kr, 02-2072-6240)